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김정은은 지난 6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6년 6월) 또한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2013년 말경 북한 전국을 미사일로 수립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6.7.26.)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 운반수단인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무수단 발사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그 위협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억제체제 및 방위체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미사일 방어체계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억제노력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야기되는 등 국론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이나 지역

국가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한국은 사할적 이익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특성과 전략적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들 위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진화되고 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조만간 대량의 핵미사일을 생산·보유·배치하여 운용할 것이다. 북한은 빠른 시간 안에 핵미사일 능력을 완비하여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존전략과 통일전략을 추구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5년간 탄도미사일을 30발 이상 발사하였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데 막대한

북한은 조만간 대량의 핵미사일을
생산·보유·배치하여 운영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생존전략과
통일전략을 추구하고자 할 것

비용을 사용하였다. 이는 김정일 집권기간 중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김정은 정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매우 자명하다. 2013년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고 핵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CNA, April 2013)

북한은 플루토늄(Pu)과 고농축 우라늄(HEU) 핵물질 모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이를 무기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영변 5MW 원자로를 통해 연간 약 6kg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약 30~40kg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최소 두 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2015년 말 현재 플루토늄 40~50kg, 고농축 우라늄 28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플루토늄 약 4~6kg 또는 고농축 우라늄 약 15~20kg으로 핵무기 1기를 생산할 경우,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핵탄두의 모형을 실제로 공개하고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4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킨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 약 1,00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약 100대를 운용하여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을 피해 은밀한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나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상호간 국력격차와 한미연합 전력으로 인해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첨단전력에 비해 매우 낙후된 군사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향후 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러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비록 미국은 재래식 첨단 정밀타격 능력 등을 이용한 새로운 억제개념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재래식 무기로서 핵무기가 갖고 있는 대량파괴능력의 효과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위협은 일반적으로 핵억제력에 의해서 추구된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군사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한국이 킬체인과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등 첨단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셋째,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한 핵 위협 및 공갈을 통해 한미

를 압박하거나, 평화공세를 실시하는 등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군사도발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자신의 체제 내부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벼랑끝 전략을 가장 중요한 정치·군사적 전략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지적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비와 응징태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후한 재래식 군사능력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핵미사일을 활용한 군사적 긴장 조성 및 도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에 대해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중경쟁 상황에서 중국을 활용할 경우,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위협을 고조시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미 북한은 핵군축 협상,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군사도발 및 평화공세를 위한 새로운 협상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역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넷째,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개발은 한반도의 핵 상황을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문제로 변화시켰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수단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다. 또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기지, 괌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여 소위 이들의 한국지원을 차단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타격 공격으로부터 생존을 보존하고, 한미를 공격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제공한다.

즉, 한미가 정밀타격 전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한미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하고 북한이 벼랑끝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 핵위협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태세를 변경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군사적 수단에 의한 통일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가 야기할 수 있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억제전략을 탄생시켰다. 비록 이제까지 핵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전략개념들도 전쟁승리보다는 억제전략의 목적으로 발전되고 운용되었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수는 최대 약 100기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운용을 차단하고 무력화하며,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방법이 연구되고 발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과 막대한 위험 및 비용 부담은 전통적 개념의 전쟁을 통한 통일전략을 추구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억제전략, 군사전략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대북 군사 억제체제 현황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체제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1953년 이래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시킴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여 제공할 것을 매년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1978년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처음으로 보장하였으며,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이를 확장억제 공약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국방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확장억제 보장을 대통령으로서 처음 공식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능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오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미는 2011년부터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운용하였으며, 2015년 양국은 이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로 발전시켰다. 한미는 이 위원회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적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북한 핵위협을 평가, 대응방안 협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를 통해 매년 북한 핵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억제전략의 이행을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eam Training Exercise: TTX)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13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핵사용 위협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위협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B-52/B-2 전략폭격기와 기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여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타격을 위협하고 정전협정을 백지화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김정은은 미 본토 타격계획 작전도를 공개하는 공갈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년 7월 20일 미군 증원전력의 도착지역인 한국의 항구, 비행장 등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는 상황을 모의한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지도를 공개하였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핵타격 지도를 공개하고 서울, 청와대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등 위협을 보다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적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고 응정보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능력을 확보

**미사일 요격체계는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 제공**

하는 것이다. 킬체인 능력은 금년 연말부터 배치 예정인 최대 사거리 500km의 독일제 정밀타격무기인 공대지 ‘타우러스 미사일’, 사정거리 280km의 SLAM-ER 공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인 현

무,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인 혜성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공중에서 중간 요격하기 위한 한국적미사일방어체계는 PAC-III와 유사한 종말단계 저고도 요격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M-SAM)를 2020년까지 개발하여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L-SAM)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전력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인 글로벌호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리고 군사용 정찰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의 이러한 독자적 억제능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단독의 대북 억제력은 제한적이며 한미 연합의 억제능력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로서 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공할 대량파괴를 순식간에 야기한다. 재래식 전쟁개념이 상대의 군사력을 상대로 한 대응이라면 핵무기는 상대의 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와 충격을 야기하는 새로운 게임의 형태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재래식 능력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미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보장 체제를 통해서 억제하는 핵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첨단무기는 핵사용의 위협을 감소하고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미사일 요격체계는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을 오관하여 선제공격하는 상황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여준다. 과거의 억제개념은 주로 응정보복 수단인 정밀타격 능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요한 전쟁 억제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중요성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THAAD)는 지상배치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체계를 한국에 보장한다.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은 요격고도가 15~20여km로서 비행장 등 핵심시설을 보호하는 하층방어 거점방어체계이다. 반면에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km로서 상층방어 지역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48발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며, 이는 한국의 1/2~2/3에 대한 광역방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은 사드의 미사일 요격체계라기보다는 사드 미사일의 사격통제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AN/TPY-2 레이더)의 성능과 사드배치에 따른 한미/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가능성 때문이다.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 탐지 조기경보 레이더로서 성능이 매우 우수하나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는 한반도 영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로서만 운용될 것임을 한국은 밝히고 있다.

사드배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드는 다층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한미의 억제력을 크게 증대시킨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자행할 경우, 사드로 먼저 고고도에서 요격을 실시하고, 이후에 패트리어트에 의해서 재차 요격을 실시할 수 있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며 한국의 의지를 북한, 중국 등에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단계 미사일 요격체계는 북한에게 핵미사일 공격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줌으로써 군사공격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특히, 한미는 첨단 정보감시체

계와 정밀타격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자행될 경우,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즉각적인 정밀타격을 실시하거나 옹정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이외에도 해상배치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함의 SM-3, SM-6가 함께 운용될 것이다. 이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 이지스함은 항상 한반도 근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상황이 발생될 경우,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어 미사일 방어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옵션으로 핵개발을 선택할 수가 없다. 또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첨단군사과학기술의 산물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북 억제를 위한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사드배치는 한국의 의지를 북한, 중국 등에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생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잘못된 습관을 갖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는 자신의 생존을 보다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게도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전달하여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제가 심리적 게임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전략적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과 인식

중국은 외교부 성명, 국방부 담화,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중 전문가 접촉, 언론 등 가용한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드배치가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균형을 훼손하고, 주로 미국이 결정한 행동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한중간의 신뢰증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더욱 자극하고 북핵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주장이 갖고 있는 특성은 북핵 위협 증대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한국의 안보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안보에 대한 생각만을 강조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사드 반대 주장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왔었다. 2014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드관련 보도와 6월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사드를 언급하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 핵위협 및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미중간
경쟁 및 갈등의 관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3월 워싱턴 미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제3국이 중

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사드관련 언급은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외교부장, 주한 중국대사, 전문가, 언론 등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토록 촉발시켰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김정은은 유엔결의를 비롯듯이 소형 핵무기 모형 및 탄도 미사일을 직접 공개하고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실효성이 없으며,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의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와 행동을 요구하였다. 한미는 2월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논의를 시작할 것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핵위협을 노골화함에 따라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 중국은 사드문제를

북한 핵위협 및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미중 간 경쟁 및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 미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두려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신의 강대국화 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질서를 저지하고 자신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지역 내 미국 중심의 안보 협력네트워크 발전을 저지하고자 한다. 미국 핵전략의 주요 개념 가운데 하나는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과 같은 지역 불량국가들의 핵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고, 전방배치 미군 전력의 안전을 보장하며,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효용성을 축소하여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유럽에 MD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터키에 MD 레이더를 설치하고, 지중해와 스페인에 이지스함을 전개하였으며, 2015년 12월 루마니아에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를 배치하였고, 2018년까지 폴란드에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와 신형 SM-3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현재 일본과 M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미 또는 한·미·일 MD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으로 지역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일·호, 미·일·인도, 한·미·일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3자 협력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 한·미, 미·인도, 미·필리핀, 미·베트남을 연결하는 양자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동남아 국가 간 협력과 같은 지역국가들간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해양정책과 이에 따른 중국과 지역국가들간의 갈등은 미국이 지역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강대국화를 위해 지역 내 이러한 질서의 발전을 저지하고자 한다. 사드배치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반하는 중요한 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미 핵전력의 전략적 균형의 약화, 지역 내 군사력 전략균형 및 중국의 군사력 레버리지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약 70~1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 약 7,500km의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ICBM 45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핵전력에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은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발전 저지, 중국의 대미 핵전력의 전략적 균형의 약화 우려, 한미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등의 인식에 기반

있어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는 핵전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미 본토 방어의 핵심인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제(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와 전방배치 미

사일 요격체계를 결합하여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ICBM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핵능력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핵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방배치 MD체계를 포함한 단계 MD능력은 중국의 핵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중국은 지역 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미사일 능력 등을 통해 만회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 능력 가운데 하나는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200발의 지상배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대량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지역 내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위협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이들 탄도미사일은 대만, 일본, 그리고 해상배치 미해군 항모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역 MD 체계가 자신의 지역 탄도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전 및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첨단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지역 MD 능력은 중

국의 전략적 사고에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MD체계 일부로 운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사드문제를 미중간의 전략적 균형, 지역 군사력 경쟁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셋째,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자신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한국이 미중사이에서 보다 균형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자 한다. 한중간 경제사회적 상호의존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대칭적 의존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갖는 전략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포기시키도록 압박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와 안보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자신의 레버리지를 사드와 같은 중요한 전략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략적 과제 및 선택 방향

사드문제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 전략적 과제의 실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안보적 기반이다. 또한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과도 한국의 미래 발전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드 문제는 한국에게 미중간의 경쟁 구조 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안보적 선택과 관련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비록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은 미래발전을 위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사드문제가 제기하는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은 이슈가 한중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이 향후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사드문제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문제를 활용해서 한국이 향후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군사적 억제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사드배치

한국의 전략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전략과 선택옵션을 대내외 천명,
한중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관리,
안보이슈에 대해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추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 협력의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발전,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사드문제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활용해서 한국의

선택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미중 간 남중국해 대립 및 중일 간 동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가 이들의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드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생존문제와 관련한 조치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옵션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조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한에서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로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 전략과 선택옵션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선택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

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대북 핵억제 체제를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이행수단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실제화하며, 이들 옵션들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억제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인식시켜 북한과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게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도발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인식시켜 이러한 상황을 방지토록 함께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우리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원칙을 명확히 하여 한중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문제에서 보듯이 중국변수는 한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주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략적 원칙을 천명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에게 주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인식시키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주요한 안보적 선택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은 강대국인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토록 하고자 하는 유혹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유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며, 선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주요 안보이슈에 대해 국민적 결속 및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이를 잘 말해준다. 위기 등 중요한 안보상황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문화와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안보이슈를 국민들에게 직접 대화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가안보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대외적인 협상력을 높여준

다. 반면에 우리의 분열된 약한 모습은 상대의 오관과 오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압박을 조장하는 유인 요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국방부. 『주한미군 사드배치 브로셔』. 2016. <<http://www.mnd.go.kr>>.
- _____.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자료. <<http://www.mnd.go.kr>>.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6월호, 2016.
- KCNA. "Laws on Consolidating Position of Nuclear Weapons State Adopted." April 1, 2013. <<http://www.kcna.co.jp>>.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eng.mod.gov.c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mfa_eng>.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pril 26, 2016.